

## 특집/보도사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 보도사진저널리즘의 특성과 기능

이 규 임

KBS 국제협력실 차장

#### 1. 보도사진의 정의

보도사진을 알려면 뉴스를 알아야 하고, 뉴스를 알려면 마인드 시스템 (mind system)을 알아야 한다. 마인드 시스템이란 상(facts)이 상(pictures)으로 변하기까지의 심리작용을 말한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facts)은 보도사진의 촬영대상이 된다. 예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거나 체험한 것들(facts)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스처를 쓰거나 그림(picture)을 그려 표현하려 했다.

한편 인간이 문자(character)를 발명하고 나서부터는 그림을 문자로 대체시켜 기록을 남겼으며, 문자가 표상하는 이미지(image)를 통해 현상(real thing)을 인지(perceive)하게 되었다. 모형(model)이 이론(theory)이 아니듯이 이미지가 현상은 아니지만 마인드(심)는 이처럼 이미지를 통해 현상을 인지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심상이란 말을 즐겨썼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현상을 놓고 대화가 상대(dyad)를 떠나 대중으로 넘어가면, 조직(organize)과 대중(mass)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며, 조직은 기업(enterprise)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은 정보추구(information)를 위해서 즉 상호이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주변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상황(situation)이 변함에 따라 조금씩 그 뉘앙스를 달리하는 새로운 말이 생겨남을 보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도라는 말의 뜻을 분석해보면 보도란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대중을 상대로 이루어질 때 생겨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즉 보도란 신문이나 방송사(communicator)가 대중에게 뉴스를 널리 알려 주는 것(Convey news to mass)을 말하며 보도사진(Photo journalism)이란 뉴스의 내용을 사진에 담아 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도사진은 뉴스와 깊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포토 저널리즘(photo journalism)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새로운 장르를 형성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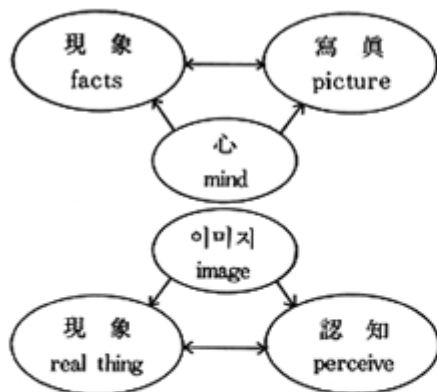
#### 1. 뉴스의 구성요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엇이든지 구조(structure)와 형상(shape)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편의상 구조와 형상을 구분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형상을 그리고, 형상은 구조를 결정해 주는 상호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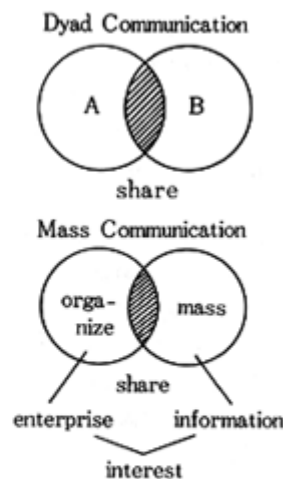
뉴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뉴스에 담겨있는 내용(message ; sementics)과 그 내용을 처리한 모양(technique ; science)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뉴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표현방법(technique ; format)에 관한 기술을 생략하고 어떠한 것(facts ; events)이 뉴스로 채택되느냐 하는 내용(message)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아무것이나 촬영하고 취재한다고 해서 다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뉴스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닐 때 뉴스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지녔다 하더라도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뉴스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지녔더라도 때(time)를 잃으면 다른 뉴스에 밀려나게 되고,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생각 지 않는 사건(unexpected events)이 생기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멜빈 맨처(Melvin Mencher)는 1984년 발행한 그의 저서에서 ① 충격성(impact or importance) ② 시의성 (timeliness of the event) ③ 탁월성(prominence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event) ④ 근접성(proximity, the closeness of the event to the readers and listeners) ⑤ 상충성(conflict) ⑥ 의외성(unusual, bizarre) ⑦ 시사성(currency, the interest people have in the situation)을 뉴스가치 (news value)로 열거했으며,1) 테드 화이트(Ted White)는 역시 1984년 발행된 그의 저서에서 뉴스로 커버되는 요소(three elements)로 ① 충격(impact) ② 흥미(interest) ③ 정보(information)를 들고 있다.2) 실제로 뉴스가 채택되는 것을 보면 첫째 관심권에 들어와야(share) 되고, 둘째 포커스가 맞아야(consensus) 하며, 세째 이해관계가 깊어야(mass related) 된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무언가 시시각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뉴스로 채택되지 않는다. 일단 어떤 일(facts)이 관심권에 들어온 다음에는 의제(agenda)가 분명해야 뉴스로서 관심이 증대되며,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이해와 밀착될 때 비로소 뉴스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스가 뉴스답지 않다는 평을 받는 것은 위에 말한 세가지 요인 가운데 무언가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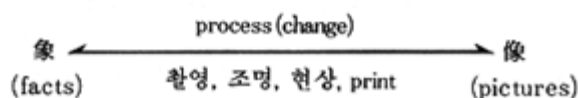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 2. 사진에 대한 이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사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으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진이란 상(facts)을 상(picture)으로 바꾼 것(encoding)을 말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 상으로 바뀌려면 조명, 촬영, 현상, 프린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상이란 복제되기 전의 자연현상(facts)을 말하며 상이란 자연현상을 복제하여 놓은 사진(picture)을 말한다. 상을 상으로 바꿀 때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인간이 지닌 선택적 속성(selective exposure, selective perceive, selective intention) 3)이다. 같은 물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자기 관심분야에만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서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본 논문에서 사진에 실려 있는 뉴스의 내용보다 표현방법에 중점을 두고 보도사진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도사진을 대할 때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촬영 대상물이다. 작품사진이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 것인데 반하여 보도사진은 현상을 형상화 시킨 것이다. 일반사진작가가 철학적 견지에서 보고 느낀점을 표현 시키는데 반해 보도사진가는 대중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이를 분석 묘사한다. 눈으로 현실을 보고 이를 분석 묘사한다. 다시 말하여 렌즈를 사회의 대안으로 놓고 대상물을 표현하면 보도사진이 되고, 렌즈를 개성의 대안으로 삼고 대상물을 표현하면 작품사진이 된다.4) 같은 사진이라도 신문사진과 그래프사진(graph photography)이 또한 다르다. 신문사진은 뉴스에 중점을 두고 신속전달을 생명으로 삼는 데 비해 그래프사진은 시간상으로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사회비판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신문사진이 사실묘사에 목적을 둔다면 그래프사진은 현실표현에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을 묘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묘사와 표현의 문제 5)로 카메라맨이면 누구에게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대두된다. 세 번째로 유의할 것은 보도사진은 선택구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작품사진은 시간을 가지고 작가의 주관에 따라 대상물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구도를 조립할 수 있으나 보도사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도사진은 성격상 시간에 쫓길 뿐 아니라, 대상물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촬영할 수가 없다. 기자를 위하여 사건(events)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포즈를 취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진기자들은 찬스에 민감해야 하며 상황(situation)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센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3. 보도사진의 역사

1842년 5월에 있었던 독일 함부르크市的 대화재를 독일의 사진가 헤르만 비오(Herman Biow)와 프레데릭 스텔쯔너(Friedrich Steizner)가 촬영하여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Illustrated London News)의 창간호에 게재한 것이 세계최초의 보도 사진이었다. 6) 그 후 1924년에 소형 카메라의 결정판인 라이카 카메라의 등장으로 보도사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36년 11월 23일 창간된 시사사진 잡지인 라이프(LIFE)지는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또한 1947년 발족한 사진통신사 매그넘(Magnum)은 보도사진의 획기적인 신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사진가들의 권익을 위하여 투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보도사진은 동시성과 속보성을 자랑하는 영상매체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문사진을 살펴보면 그 기원은 1909년 대한민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율희 3년에 광고사진의 형태로 처음 신문에 게재된 사진은 한강의 전세유람선 광고사진이었다. 그리고 기사란에 처음으로 게재된 사진은 1910년 11월 3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던 천황사진과 동경관성 이종교 사진이었다. 이처럼 뒤늦게 시작된 보도사진이지만 4·19를 전후하여 전개된 자유로운 보도활동에 따라 보도사진사상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 II. 보도사진의 기능과 특성

보도사진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라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보도사진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체이므로, 보도사진의 기능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커뮤니케이션의 학자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한다. 즉 Lasswell의 환경감시기능, 합의기능, 사회로 말하는데, 이 4가지 기능은 커뮤니케이터의 입장에서 본 기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상대적으로 수용자(viewer)의 입장에서 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역시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inform-understand, 둘째 teach-learn, 셋째 Please-enjoy, 그리고 네 번째로 persuade-decide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기능에 맞추어 보도사진의 기능을 조명해 보기에 앞서 보도사진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 2. 보도사진의 특성

보도사진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째가 시각에 호소하는 매체(picture oriented message, 백문불여일화)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고, 셋째는 시간보다 공간매체(space oriented)라는 점이며, 넷째로 감성소구매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보도사진의 기능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 3. 보도사진의 기능

#### (1) 직물현상(visual primacy)

직접물상현상이란 사람이 무엇을 보면, 보는 즉시 이해하는 시각우선현상을 말한다. 인체가 지니고 있는 감각기관 가운데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80%에 달한다는 사실(everything visual rather than verbal)<sup>7)</sup>하나만 보더라도 비주얼 프라이머시(백문부여일화; photos enliven the story and often contribute visual details that words cannot)<sup>8)</sup>의 기능을 헤아려볼 수 있다. 보도사진 같은 영상문화의 특징은 바로 영상구조를 직접 본다는 데 있다. 이처럼

영상을 직관하는 데서 모든 정보(information)를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기의식구조로 수렴하여 효율적인 양식으로 소화시켜 모든 문제를 거리와 시간으로 단축시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직접물상의 장점이 있다.

#### (2) 매스 어필(mass appeal)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사진 역시 그 대상을 대중에 두는 점도 있지만 사진은 문자와 달리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구대상이 된다.

#### (3) 인지격차 해소(bridge gap)

인쇄매체의 경우는 수용자의 상황이나 심리상태 등에 따라 같은 글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진은 있는 사실을 현상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계층과 신분 그리고 지식 정도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작용(do a more effective job of telling the news)9)함으로써 인지의 격차를 좁혀주는 기능을 한다.

#### (4) 공감대(share) 형성

보도사진은 어떤 사건을 대중에게 전달함에 있어 문자가 아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어느 매체보다 보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시켜 준다. 공감대를 빨리 형성시켜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진이 공간매체라는 점이다. 때문에 사진을 통한 정보는 보는 즉시 순식간에 이해된다.

#### (5) 합의(consensus) 증대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 합의점이 찾아지게 마련이며, 의견이 일치되면 합의가 증가되기 마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물현상, 매스어필, 인지격차 해소, 공감대 형성, 합의 증대 5 가지를 보도사진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5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3 가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진을 매체로 하는 시각 시스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시스템을 이용한 사진은 사건의 전달이나 그 이해에 있어 다른 어떤 매체보다 정확도가 높다. 청각시스템에 호소하는 말은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장점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하며 라이팅(writing) 시스템에 호소하는 문자는 묘사(encoding)하는 사람과 이해(decoding)하는 사람의 속성에 따라 현상(facts)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사진이 만능은 아니다. 사진을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도 견해의 통일과 사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단히 보완해주기 위해 캡션(caption)이 필요하다. 이런 캡션은 그 설명이 간단해야 하고 포인트(point)가 있어야 하며 또한 입체성을 지녀야 한다.10) 이처럼 사진과 캡션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포토 저널리즘(Photo-Journalism)이 탄생되는 것이다.

## 4. 보도사진과 TV 방송뉴스

여기서 잠깐 보도사진과 TV 방송뉴스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 장의 정사진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사진과는 달리 방송뉴스는 동사진(motion picture)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사진은 공간성 매체이면서 한 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장내에서 구도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동사진은 사진이란 공간적 요소 위에 시간성을 가미한 매체인 관계로 편집(editing)이

뒤따르게 된다.11)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송뉴스를 담아 전하는 동사진은 컨티뉴어티(continuity)와 에디팅(editing)이 중요하다. 영상 발전사를 보면 에디팅의 발전이 곧 영상매체의 발전임 12)을 실감할 정도로 에디팅과 컨티뉴어티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준다. 영상을 매체로 하는 방송뉴스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동사진의 속성이다. 정사진을 기본으로 하는 보도사진에서는 운동감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움직임 그 자체를 묘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동사진에서는 움직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현실이상으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청자를 감정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다. 이러한 리얼리티(reality)와 렌즈의 분해력으로 말미암아 보도사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송뉴스에서도 초상권(photographs are a more common source of false light rises than are stories)13)과 프라이버시(privacy ; the right to be let alone)14)가 문제가 된다.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신문기사와 달리 보도사진이나 방송뉴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회계층이나 신분 그리고 학식정도를 초월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사진을 기본으로 하는 보도사진은 특히 초상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동사진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뉴스는 초상권 외에도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중요시 된다. 보도사진이든 방송 뉴스이든 사회 속에 존재하며 대중을 상대하는 매체임으로 언제나 교육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 III. 보도사진의 종류

보도사진의 종류는 그것을 구분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표현수단에 의한 분류와 상황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표현수단에 의한 분류

##### (1) 단사진

단사진이란 한장한장의 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사진의 80~90%가 이 단사진으로 되어있다. 이 단사진은 또 뉴스사진과 피쳐(feature)사진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뉴스사진

단적으로 말해 뉴스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진이 갖고 있는 뉴스가치에 따라 사진의 크기, 트리밍(trimming) 그리고 시의성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뉴스 가치란 뉴스가 갖고 있는 내용상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 뉴스사진은 사건을 얼마나 사진적으로 잘 처리했느냐 하는 know-how 측면과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묘사했느냐 하는 표현의 측면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 ② 피쳐사진

피쳐사진은 뉴스사진과 비교해서 살펴 보면 이해가 빠르다. 뉴스사진은 카메라 자체가 어떤 이벤트(event)를 쫓아가는 것으로 카메라맨의 의도가 약한 데 반해 피쳐사진은 이벤트를 쫓아가되 그 속에 카메라맨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두 사진을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뉴스사진은 순간포착에 중점을 두고 데스크의 판단기준을 순간적으로

집어내는 것이 생명이고, 피쳐사진은 시간이란 양념이 가미된 사진으로 그 속에 미감이 담겨있어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생명이다. 이 사진은 기록성이 강한 사진으로 시간의 추이에 따른 기록이 중요시 된다. 뉴스사진이나 피쳐사진도 기록성이 강하지만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은 더욱더 기록에 중점을 두게 된다.

#### (2) 연작사진

연작사진은 테마(theme)에 중점을 두는 사진이다.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 독립될 수 있고 그것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의 idea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일 때의 의미보다는 훨씬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 이 사진은 사진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연속사진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경과를 하나의 시리즈로 보여주는 사진을 말한다. 이 연속사진은 그 기법에 따라 세가지가 있다. 첫째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시간경과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으로 흔히 교육자료 등의 제작에 이용된다. 둘째로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피사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시간경과에 따라 촬영하는 경우이며, 셋째 카메라는 이동하고 피사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촬영하는 경우이다. "보도사진의 위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건설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보도사진을 통해 신문과 방송을 실질적이고도 우수한 문화매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조사진

일종의 세트(Set) 사진으로 스토리를 갖고 있어 기·승·전·결이 내포되어 있다. 스토리를 담고 있는 테마는 전체를 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진은 전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 2. 상황(situation)에 따른 분류

#### (1) 단독사진

사건의 원인이 한 인물에 있을 때 그 한 사람만을 담은 사진을 말한다.

#### (2) 다이아드(dyad) 사진

어떤 사건의 원인이 한 인물과 상대되는 또 한 인물이 될 때 그 두 사람이 속한 어떤 상황을 표현한 사진이다.

#### (3) 그룹(group) 사진

사건의 원인이나 초점이 그룹에 있을 때 그 그룹을 담은 사진을 말한다.

#### (4) 행사사진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행사에 기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 행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면을 담아 온 사진을 말한다.<sup>15)</sup> 행사사진에서는 전체분위기를 보여주면서도 주제가 정면에 부각되고 부제는 측면으로 처리하는 센스와 기법이 요구된다. 행사사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자는 누구보다 자세히 그 행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세심한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행사가 많아 행사사진이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 그런 행사는 매년 내용은 같고 그 구성인원이나 참가자만

달라질 뿐이므로, 작년사진과 금년사진을 판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센스와 판단력이 필요하다.

#### (5) 사건사진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사고현장을 생생하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진으로 어떤 사건의 내용자체를 사진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사진에는 장소사진과 인물사진 그리고 증거자료사진이 있다.

#### (6) 자료사진

비단 신문등에 게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여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반드시 그 사건에 관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참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진 같은 것도 자료사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 IV. 보도사진 취재경위와 사진관행

#### 1. 사진기자의 취재과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진기자의 취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사건현장을 추적하는 뉴스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이슈(issue)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추적하는 피쳐사진이다. 사진을 추적하든, 이슈를 추적하든 기자로서는 그 사건의 가장 실감나는 현장을 추적하여 독자가 감명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취재과정에 있어 어떤 원칙적인 것이 있을 수는 없고 기자의 역량에 따라 그 현장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처럼 사건이나 이슈를 불문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사건을 얻어야 한다는 명제는 같고 그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기자의 느낌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신문사나 취재과정은 비슷하다. 편집회의에서 이슈가 결정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데스크의 명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슈를 따라 현장을 추적하는 취재팀은 대상을 보는 시각이나 인식을 데스크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을 추적하는 취재팀은 상황판단과 현장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보도 사진을 남긴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취재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진기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직무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사진촬영으로 인해 타인이나 타 기관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쉽고, 사진기자는 순간포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권익을 염두에 두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범죄사건을 취재할 경우, 사건 심각할수록 범인이나 피의자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들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사진기자들이 이러한 보도사진 촬영 시 자제된 이성보다는 흥분과 특종의식 속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범인이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사진취재 기자들의 신중함과 윤리의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게 된다. 사건을 추적하는 사진기자들은 상황판단과 현장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윤리의식도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로는 보도사진의 강렬한 메시지 전달효과 및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상기억의 충격적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보도된 사진이 오류가 있거나 또는 공익과 상관없이 특정인·특정단체·특정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기사에 의한 침해보다도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들은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사건현장을 취재하든, 어떤 이슈(issue)에 따라 대상을 취재하든 사진촬영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보도에 의한 권익침해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주체적 윤리의식을 스스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사진편집과정

편집자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보도사진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재하도록 보내진 뉴스상황에 접근하는 16) 방법과 마감시간에 맞도록 취재물을 가져오는 방법에 관한 지식, 둘째,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near impossible condition)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속한 작업으로 유용한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셋째,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임기응변을 겸비한 강한 의지, 17) 이러한 것들이 유능한 기자의 평가기준이 된다. 좋은 사진은 이런 요건과 기자자신의 감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데스크의 요청과 주문에 따라 사진을 촬영해왔다 하더라도 카메라맨이 촬영해 온 사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데스크를 맡은 사람의 감각과 판단에 따라 사진은 여러 형태로 트리밍(trimming) 되거나 확대된다. 다음 사진도 데스크에서 보도사진을 잘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①번 사진은 뉴스의 초점을 한 사람에 맞추어 원래의 사진을 확대 보도함으로써 사진효과를 한층 더 높인 트리밍이고 ②번 사진은 트리밍을 잘못함으로써 감격적인 순간의 분위기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보도사진으로서의 가치를 격감시킨 예이다. 신문사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 그 사진의 형태(shape)와 크기 (size)로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18) 형태와 크기가 쓰고자 하는 곳에 적당히 맞으면 그 다음으로 내용(Contents)을 살펴 보는데, 신문사진의 내용은 뉴스성과 휴머니티(humanity) 그리고 미감(esthetics)19)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의 마지막 사진편집 순서로서 사진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보도할 사진이 윤리적으로 볼 때 음란성이 농후하다거나 기사본문과 별 상관없이 사진에 포함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사진을 트리밍하거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편집자가 태만하거나 시간에 쫓겨 그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적소송제기가 유발될 수도 있다. 사진의 편집에 대해서는 기자나 데스크 양측 모두 불만을 지닐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기자들은 편집자들의 무감각하고 미숙한 난질(hacking)20)에 대해 불만을 갖고, 데스크측에서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보다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진기자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다재 다능한 사진기자는 주제나 사건에 맞게 그의 접근방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융통성 있어야 하며, 명령을 받을 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사진기자의 능력도 카메라 메커니즘(mechanism)과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할 때 빛나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보도사진기자는 대중의 관심과 이해에 맞추어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뉴스 가치도에 대한 선별력 배양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고차원적 윤리의식을 갖추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발전적 자세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 3. 보도사진게재시 편집인의 일반적 관행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진으로서의 뉴스가치에 따라 편집의 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뉴스가 곁들여 있을 때에만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만으로서의 보도는 현재까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4·19 이후에 신문사진이 사건뉴스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았고 그때부터 신문사진이 뉴스사진으로 변모했다.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뉴스가치(news value)와 사진가치 (picture value)에 의해 사진의 선택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각 데스크에서 톱(top)이나 중간 톱(top) 등의 순서로 정해 준 것을 갖고 취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어라키 시스템(hierarchy system)에 따라 편집이 결정되고 방송뉴스의 순서와 프레임 사이즈(frame size)가 결정되고 있다. 신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습관적으로 게재되는 신문사진이나 하이어라키 시스템에 구매되어 타성적으로 짜여지는 방송뉴스는 이제 그만 지양될 때가 왔다고 본다.

### V. 바람직한 보도사진저널리즘의 방향

보도(press)라는 것은 현상(facts)을, 즉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생명이므로 사진(pictures)이 가장 이상적인 매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상이 우선 되어 있고 그것의 묘사와 표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에 따라 사진을 찍고 게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관심권에 들어온 현상(facts)이라 할지라도 초점(focus)을 맞추지 못한 사진은 게재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진을 하나의 구색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이끌어가는 리딩 포인트(leading point)로서 사용해야 한다. 진정한 보도사진은 포토 커뮤니케이션(photo communication)<sup>22)</sup>에 있다. 사진으로 그 상황을 보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도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도사진과 신문사진이 구별될 때에 그 보도사진은 포토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보도사진은 바로 이 포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가지 더 첨부할 것은 포토 저널리즘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인 이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려하는 역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말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dysfunction)은 ① 마취기능(narcotization) ② 대중문화의 조장(acceleration of mass culture) ③ 도피 현상 유발(cause social deviation)인데, 여기에 한가지 더 열거한다면 ④ 기대상승에 따른 좌절상승을 들 수 있다. 한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역기능 외에 법 윤리적 측면에서 보도사진저널리즘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보도사진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각매체이며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역효과가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한번 엮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주워담기가 어렵듯이 문제성 있는 사진이 일단 보도되면 그 충격에 의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성년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든지,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의 얼굴이 공개된 후 나중에 그 피의자가 무죄로 석방된다든지, 또는 고발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자나 건물의 사진이 잘못 보도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정정되더라도 그 피해회복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독자의 머리 속에 한번 찍혀진 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활자로 된 기사내용보다는 보도사진의 내용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이 원리는, 우리가 오래 전에 지면과 활자로 경험한 소설의 줄거리보다는 영상으로 경험한 영화의 줄거리를 더 잘,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경우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사진이 법 윤리적 측면에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및 기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역기능을 산출하게 되면 수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수반한 직접적이고도 충격적인 권익침해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보도사진의 역기능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것이 모든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보도사진의 위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건설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보도사진을 통해 신문과 방송을 실질적이고도 우수한 문화매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Melvin Mencher, News Reporting and Writing (Wm. C. Brown Publishers, Iowa, 1984), pp.68~78.2) Ted White 외 2A, Broadcast News Writing, Reporting and Production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1984), pp.19-20.
- 2) Ted White 외 2A, Broadcast News Writing, Reporting and Production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1984), pp.19-20.
- 3) Burgoon, Approaching Speech Communication, pp.152~163
- 4) 김용훈, 보도사진의 이론과 실제(서울 문화교육 출판사, 1963), p.20.
- 5) 김용훈, 전게서, pp.31~35
- 6) 이오봉, 보도사진의 어제와 오늘, 「신문과 방송」(1986. 9월), pp.30~32.
- 7) Bruce H. Westley, News Editing(Houghton Mifflin Co., Boston, 1980), p.297
- 8) Bruce H. Westley, 전게서, p.297.
- 9) Bruce H. Westley, 전게서, p.297.
- 10) 김용훈, 전게서, p.82.
- 11) Ernest Lindgren, The Art of the Film (National Film Broad of Canada Production, London, 1967), p. 59.
- 12) Ernest Lindgren, 전게서, p. 55.
- 13) Don R. Pember, Mass Media Law (Wm. C. Brown Publishers, Iowa, 1984) , p.230.
- 14) Don R. Pember, 전교서, p.187.

- 15) 민태영, 현대사진(서울 : 삼지사, 1982), p.283.
- 16) Terry Fincher, Creative Techniques in Photo – Journalism (Lippincott & Crowell, New York, 1980), pp.94~98.
- 17) Michael J. Langford, Professional Photography (Focal Press, London, 1974), p. 43.
- 18) Bruce H. Westley, 전계서, p. 301.
- 19) Bruce H. Westley, 전계서, p. 302.
- 20) Michael J. Langford, 전계서, pp.44~45.
- 21) R. Smith Schuneman, Photographic Communication(Focal Press, London, 1972), PP.92~99.
- 22) 민태영, 전계서, p. 283.
- \*사진(1) Photographer unknown/Associated Press Herold Evans, Pictures On A P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N. Y., 1978), pp. 217~218.
- \*사진(2) Ray News/Argos-Leader, Sioux Falls/Courtesy Associated Press  
Herold Evans, 전계서, p.226.
- 
-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대학원 (정치학박사)
- 저술 : 「한국 극영화 내용에 관한 연구」 외 다수
- 현재 KBS 국제협력실차장, 중앙대 사진학과,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